

# News Release

에어캐나다, 날로 확장되고 있는 에어캐나다의 국제선 노선망에 토론토-서울 직항 항공편 추가  
아시아, 유럽 및 남미로 향하는 787 드림라이너 서비스 확장 프로젝트의 일환

2015년 10월 29일, 토론토 및 서울 - 금일 에어캐나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제선 서비스 확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토론토와 대한민국 서울 간을 운항하는 직항 항공편을 취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6월 17일  
금요일부터 토론토 피어슨 국제 공항과 서울 인천 국제 공항 간을 연중 매일 운항할 예정입니다.

에어캐나다 사장인 벤자민 스미스는 "에어캐나다의 중심 공항인 토론토와 서울 간의 직항 항공편 취항으로  
계속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에어캐나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신규  
노선은 토론토에 위치한 에어캐나다의 중심 공항을 통해 대한민국과 캐나다 동부, 미국 북동부와 남미 간을  
여행하는 고객에게 가장 빠른 비행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밴쿠버-서울 노선 서비스와 더불어,  
에어캐나다는 주당 최대 14개의 항공편으로 캐나다와 대한민국 간에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 중 가장  
많은 항공편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에어캐나다의 토론토-서울 직항 항공편은 고객에게 세 가지 좌석 클래스와 업계 최고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국제선에 새로움을 더하고 있는 보잉 787-8 드림라이너로 운항됩니다. 에어캐나다는 2016년까지 21대의  
보잉 787 항공기를 포함하도록 국제 항공기를 교체하고 확장하는 과정이며(37대 주문 발주 완료), 오늘날  
운행되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여객기가 주는 편안함과 이점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토론토에서 아시아,  
유럽 및 남미를 잇는 기존 노선을 드림라이너 운항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신규 토론토-델리 및 두바이 노선이 보잉 787-9 항공기로 운항되고, 이와 더불어 토론토-  
이스탄불 노선도 2016년 5월부터 보잉 드림라이너 운항 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이며, 토론토-코펜하겐, 취리히,  
텔아비브, 도쿄-나리타(하절기 운항) 노선과 런던-히스로로 운항하는 토론토 및 밴쿠버 항공편은 물론, 밴쿠버-  
도쿄-나리타, 서울 및 브리즈번 노선도 전환될 예정입니다. 에어캐나다는 캘거리에서 출발하여 도쿄-나리타,  
런던-히스로 및 프랑크푸르트로 운항하는 국제 항공편도 2016년부터 보잉 787 항공기로 운항할 예정입니다.  
에어캐나다의 보잉 787 드림라이너와 신규 국제선 노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www.787.aircanada.com](http://www.787.aircanada.com)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여름까지 보잉 777-300ER과 777-200LR 항공기로 운항되는 토론토-런던-히스로, 프랑크푸르트,  
파리, 도쿄-하네다, 베이징, 상하이, 홍콩 노선과 밴쿠버-베이징, 상하이 및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노선도  
일관된 국제선 상품과 비즈니스 클래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및 이코노미 클래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The only Four-Star  
international network  
carrier in North America

A STAR ALLIANCE MEMBER



에어캐나다가 소유한 보잉 777 항공기 25대 모두를 전환함에 따라 보잉 드림라이너로 새롭게 수립된 에어캐나다의 새로운 국제선 서비스를 갖출 예정입니다.

토론토-서울 항공편은 항공기 내 전 좌석에 업그레이드된 기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완전히 눕혀지는 좌석 형태의 국제선 비즈니스 클래스 20석, 프리미엄 이코노미 21석 및 이코노미 클래스 210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잉 787-8 드림라이너 항공기로 운항됩니다. 이 항공편은 에어캐나다의 중심 공항인 토론토를 통해 당사의 광범위한 북미 및 남미 노선망을 최적화하는 것에 발맞추어 운항됩니다. 모든 에어캐나다 항공편은 에어로플랜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고객에게 우선 탑승 수속, 메이플 리프 라운지(Maple Leaf Lounge) 이용, 우선 탑승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울에서는 에어캐나다를 이용해 일본, 태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 전역에서 출발하거나 그곳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고객에게 스타 얼라이언스 파트너인 아시아나 항공과의 편리한 항공편 연결 서비스 및 상호 적립 가능한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항공편	출발지	목적지	이륙 시간	착륙 시간	운항
AC61	토론토(YYZ)	서울(ICN)	13:35	16:20 (다음 날)	매일
AC62	서울(ICN)	토론토(YYZ)	15:00	14:50	매일

2009년부터 에어캐나다는 전 조직에 걸쳐 운영하는 국제선의 좌석수를 대략 50% 늘렸습니다. 올해, 에어캐나다는 몬트리올-베니스 및 멕시코 시티, 밴쿠버-오사카, 토론토-암스테르담의 신규 국제 노선 서비스를 취항했습니다. 11월에는 토론토에서 두바이와 델리로 운항되는 직항 노선 서비스를 취항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 토론토에서 프라하,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글래스고 및 런던-개트윅을 잇는 신규 노선 서비스와, 밴쿠버에서 브리즈번을 잇는 신규 노선 서비스, 그리고 몬트리올에서 라이언 및 카사블랑카를 잇는 신규 노선 서비스도 운항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에어캐나다는 6 개 대륙에서 200 개가 넘는 공항에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최대의 국내 및 국제 항공사입니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전 세계 20 개의 최대 규모의 항공사 중 하나이며, 2014 년도 기준 3,800 만 명이 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에어캐나다는 캐나다 내 63 개, 미국 내 52 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카리브해, 멕시코, 중남미 내 86 개 공항에 정기 여객 서비스를 직접 제공합니다. 에어캐나다는 193 개 국가의 1,321 개 공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광범위한 항공 운송 네트워크인 스타 얼라이언스의 창립 멤버입니다. 에어캐나다는 영국의 독립적인 조사 기관인 Skytrax 에 의해 별 4 개 등급을 받은 북미 유일의 국제 노선 운항 항공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aircanada.com](http://www.aircanada.com), 트위터에서 @AirCanada,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0 -

문의처: Isabelle Arthur(몬트리올) [Isabelle.arthur@aircanada.ca](mailto:Isabelle.arthur@aircanada.ca) 514 422-5788  
 Peter Fitzpatrick(토론토) [peter.fitzpatrick@aircanada.ca](mailto:peter.fitzpatrick@aircanada.ca) 416 263-5576

AIR CANADA 

A STAR ALLIANCE MEMBER 

인터넷: Angela Mah(밴쿠버)  
[aircanada.com](http://aircanada.com)

[angela.mah@aircanada.ca](mailto:angela.mah@aircanada.ca)

604 270-5741